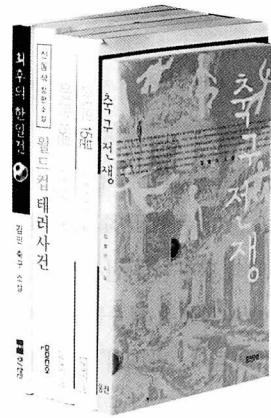


월드컵보다 먼저 종이의 그라운드를 누빈 축구공

월드컵 기념해 축구소설 속속 출간돼



역사적인 2002 한일 월드컵이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 가운데 그라운드의 열기를 종이 위에 담아낸 축구소설들이 속속 출간돼 눈길을 끈다. 중견작가 고원정의 《마지막 15분(전2권)》(생각의 나무)이 월드컵 조추첨이 끝난 직후인 지난해 12월 초에 출간됐으며, 김 민의 《최후의 한일전》(현민시스템)과 신동식의 《월드컵 테러사건》(민미디어)이 그 뒤를 이었다. 최근에는 여성작가로선 처음으로 김별아씨가 《축구전쟁》(웅진)을 발표해 화제가 됐다.

역동적인 그라운드의 열기 그려

축구는 열정의 스포츠다. 힘찬 에너지가 솟구치고 선수들이 구사하는 고도의 테크닉이 관중들의 환호

를 이끌어내는 열광의 축제다. 국내 축구소설의 무너리인 고원정의 《마지막 15분》은 역동적인 그라운드의 감동을 종이 위에 옮겨 놓은 소설이다. 이 책은 2002 한일 월드컵이 열리는 경기 일정에 맞춰 개막 12일 전인 5월 19일부터 개막 18일째인 6월 17일까지 약 한달 동안을 집중 조명한다.

주인공 '이파일'은 프로무대에 뛰어난 첫해에 신인상을 거머쥐며 축구계의 주목을 받은 선수다. 하지만 방탕한 사생활 때문에 지

금은 소속팀에서조차 후진으로 밀릴 만큼 깊은 슬럼프에 빠져 있다. 그런 그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다. 국가대표팀 부동의 스트라이커이자 파일의 친구인 '김건우'가 갑작스런 부상으로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게 되자 대표팀 감독 '히딩크'가 무명이나 다름없는 파일을 이례적으로 발탁한 것.

하지만 어렵게 재기에 성공한 파일에겐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위낙 의외의 발탁이라서 동료선수들로부터 따돌림당하고, 언론도 호의적이지 않다. 이 책은 파일이 온갖 질서와 역경을 딛고 한국 축구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는 감동적인 과정을 담아낸다. 그 가운데 '마지막 15분'의 명승부가 펼쳐지는 이탈리아와 벌어진 연장전은 책을 읽는 내내 손에 땀을 쥐게 한다.

축구소설이 축구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지은이는 '이파일' 일가의 뒤뜰린 가족관계를 통해 궁극적으로 한일간의 오랜 반목마저 축구를 통해 해소시키자는 화해의 메시지를 담았다. 소문난 축구광인 지은이가 내놓은 한국팀의 예상성적을 미리 엿보는 재미도 있다. 지은이에 따르면, 한국팀은 1차전에서 맞붙는 폴란드와의 경기는 1:1 무승부, 2차전 미국과의 경기는 3:2로 한국팀 승, 3차전 포르투갈과의 경기는 1:2로 패한다. 하지만 다득점구 우선 원

“축구는 가치의 스포츠다”

《축구전쟁》 펴낸 김별아씨

— 축구소설을 쓴 까닭은?

“5월 31일 우리 땅에서 열리는 최대의 스포츠 제전 월드컵을 나름대로 기념하고 축하하고 싶었다. 또한 스포츠 문학이 자리잡지 못한 척박한 풍토에서 이런 작업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았다. 이 책은 개인적인 경험, 자전적 경향의 신변잡기식 소재를 넘어 좀더 새로운 분야로 작품의 영역을 넓히려는 작업의 연장선상에 있다.”

— 라틴 아메리카를 배경으로 했는데 어려움은 없었나?

“개인적으로도 실형적인 작품이다. 본래 축구이야기만 쓰고 싶었는데, 실화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 자칫 작품이 평면적으로 흐를 것 같아 라틴 아메리카



의 역사와 정치·문화사까지 아우르려고 했다. 역사에서 소외됐던 라틴 아메리카인들의 비극적인 역사 그리고 신분상승의 유일한 출구인 축구를 통해 제2의 펠레를 꿈꾸는 젊은이들의 진솔한 삶을 보여주고 싶었다.”

— 축구는 어떤 스포츠라고 생각하는가?

“축구는 가치의 스포츠다. 팀마다 나라마다 축구 스타일이 다른데, 이는 축구가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전통과 기억을 바탕으로 창조된 스포츠이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축구는 전쟁과 혁명의 도화선이 되기도 하고, 독재자들마저 매혹시킨 유일한 스포츠다.”

— 축구마니아라고 들었는데...

“축구의 진정한 가치는 경기장에 가봐야 알 수 있다. 나는 그저 가끔 축구장을 찾고, 텔레비전 중계를 열심히 보는 소박한 팬이다. 소설을 쓰면서 여기저기 자료를 찾고 공부하면서 축구를 보는 눈이 조금 높아진 '비축구인'이라고 할까.”

칙에 따라 한국팀은 극적으로 16강에 진출하고 급기야 이탈리아를 꺾고 대망의 8강에 진출한다.

축구전쟁으로 읽는

라틴 아메리카 민중의 삶

《마지막 15분》이 2002 한일 월드컵에 대한 하나의 치밀한 가상

시나리오라면, 김별아의 《축구

전쟁》은 축구미학의 관점에서 축구의 가치를 탐색한다. 지은이는 축구를 스포츠가 아닌 삶의 방식으로 대한다. 월드컵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었던 1969년의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의 축구전쟁을 살펴보면서 축구 속에 농축된 라틴 아메리카 민중의 삶을 읽는다.

소설은 제2의 펠레를 꿈꾸는 온두라스의 가난한 소년 ‘삐삐’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삐삐’의 주변엔 유능한 축구선수이자 지역개단의 행동대원인 형 ‘알폰스’, 형의 애인이자 ‘삐삐’가 짝사랑하는 여인 ‘이사벨’이 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축구가 광기를 띤 전쟁으로 비화될 때, 방황하는 ‘삐삐’에게 마야의 신화와 전설을 얘기해주며 끊임없이 힘을 북돋워주는 늙은 인디오 ‘나꿈’이 등장한다.

지은이는 이 책에서 직접적인 체험이 전무한 30여년 전 중남미 역사를 한 소년의 성장기 속에 투영한다. 그리고 정복당한 땅에 살아야 했던 마야 후손들의 신산한 삶의 풍경을 담담하게 보여준다. 축구의 원형과 사람들을 달뜨게 하는 원시적인 생명력의 실체를 밀도 있게 탐구한 들머리도 눈여겨볼 만하다.

픽션과 현실이 결합된

독특한 가상 축구의 세계

신동석의 《월드컵 테러사건》은

월드컵 경기장을 배경으로 벌어

지는 테러리스트들의 음모를 추

적한다. 주인공 ‘김철민’은 준준결승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나카타로 떠난다. 그러나 그가 나카타 공항에 도착했을 땐 이미 경기장이 폭파되고, 같은 날 경기가 열리는 제주 경기장 역시 폭파사건이 일어나 관람객들이 무참히 죽어간다. 그 후 본국으로 들어오라는 호출을 받고 일본 대장성의 비밀요원 미야자끼와 함께 현장조사를 위해 제주로 향한다. 한편 철민 일행이 탄저균 테러의 배후를 밝혀내는 동안 테러리스트들은 다음 경기장인 서울 상암동 경기장으로 이동한다.

이 책은 세계인의 축제를 노리는 가공할 만한 음모,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마개를 드러내는 테러리스트들의 배후와 숨막히는 반전이 돋보인다. 축구를 통해 깨끗한 스포츠맨십, 정의는 살아 있다는 주제를 담아낸 김 민의 《최후의 한일전》도 흥미로운 소설이다.

이 축구소설들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마지막 15분》《월드컵 테러사건》《최후의 한일전》이 모두 2002 한일 월드컵이 열리는 기간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이다. 작가들은 축구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실존하는 특정 인물을 소설 속에 등장시키는 등 파격적인 구성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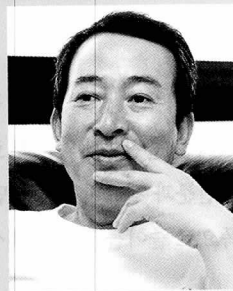
축구의 매력은 골을 향한 응집력과 순간의 폭발력

《마지막 15분(전2권)》 펴낸 고원정씨

— 지난해 12월 월드컵 조추첨이 끝난 뒤 출간됐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조추첨 결과에 맞춰 좀더 생동감 있는 축구소설을 쓰고 싶었다. 탈고는 11월 초 이미 끝냈지만 그래서 출간을 조금 미뤘다. 대진표가 나오기 전까진 한국, 덴마크, 미국, 포르투갈을 같은 조로 구성했다. 결과적으로 그 가운데 덴마크만 폴란드로 바뀐 셈이다.”



— 축구의 매력은 무엇인가?

“축구는 대중들과 친숙하다. 전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보급된 스포츠다. 또한 다른 스포츠에 비해 간단해 축구를 처음 보는 사람도 경기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무엇보다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골을 향해 90분을 질주하는 응집력과 골이 터지는 순간의 폭발력이 축구의 매력이다.”

— 아직 국내에선 축구소설이 낯설다.

이 책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나?

“언젠가 스포츠 소설을 써보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소설이 단지 스포츠 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주인공 ‘이파일’ 일가를 통해 가족해체 문제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지금 실의에 빠져 있는 이 땅의 모든 젊은이들에게 마지막 한번의 기회는 남아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싶었다.”

— ‘축구광’ 눈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16강 진출 가능성을 어떻게 보나?

“소설 속에선 8강에 진출하는 걸로 그렸는데 그건 소설적 재미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조편성 결과나 각 팀의 전력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16강 진출은 무난할 것으로 본다.”

로 픽션과 현실이 결합된 독특한 가상 축구의 세계를 종이 위에 구현한다.

축구소설은 또한 등근 축구공에 깃든 인간의 꿈틀거리는 욕망을 말해준다. 《축구전쟁》의 마지막 부분은 축구뿐 아니라 인간의 내면을 예리하게 파헤친다.

“그것은 척박한 현대의 사냥꾼들이 터뜨리는 살육의 클라이맥스다. 무혈의 상태에서 만끽할 수 있는 아찔한 절정의 흥분이다. 공은 둥글고, 경기가 끝나기 전에는 아무도 승패를 말할 수 없다. 역전의 희망이 남아 있는 한 정해진 승부는 단 한 게임도 없다.”

— 박옥순 기자